

자아고갈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민지
신광여자중학교

김범준[†]
경기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아고갈의 정도에 따라 처벌판단과 반박증거를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실에서 배심원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N=62)을 자아고갈 집단과 자아 고갈이 낮은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자아 고갈을 조작하였다. 자아 고갈 조작 후,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판단과 반박증거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자아고갈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피의자의 반박증거를 덜 고려하였고, 유죄를 더 많이 선고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아고갈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은 양형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고갈과 양형판단간의 관계를 반박증거 대한 고려 정도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자아고갈이 발생할 경우, 재판 후반부 제시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아 양형 판단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자아고갈, 반박증거, 처벌판단, 양형, 국민참여재판

* 본 연구는 김민지(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김범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193, E-mail: bjkim@kyonggi.ac.kr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범죄유형,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하사랑, 김범준, 김민지, 2013; 최승혁, 허태균, 2012; Mazzlla & Feingold, 1994), 판단자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인식(최승혁, 허태균, 2011), 설시의 제시 순서(성유리, 박광배, 2015), 증거사진 제시 시기(길원미, 2011), 처벌기준 및 처벌철학(김범준, 최승혁, 2008), 혐오스러운 사진증거(Douglas, Lyon & Ogloff, 1997) 등이 처벌판단 및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anziger, Levav, 및 Avnaim-Pesso(2011)는 심리적 자원의 결핍(mental depletion)과 같은 자아고갈(ego depletion)이 재판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처벌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아고갈(ego depletion)이란 자기 조절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인지적 자원 즉, 자기 조절 자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사용하여 소진하게 되면 남은 자원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조절자원을 사용한 후에는 남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통제력을 비롯해 다양한 인지적 측면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Baumeister, Vohs & Tice, 2007; Muraven & Baumeister, 2000). 이것을 자아고갈 효과(ego depletion effect)라고 한다.

재판을 통해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이다. 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과 그와 관련된 증거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한다. 이 과정

은 법률 전문가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즉 법률적 지식이 일천한 배심원에게 있어서 제시되는 증거와 주장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전체 재판과정이 다른 재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한 배심원들에게 자아고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자아고갈이 처벌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올바른 재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자아고갈: 자기통제의 에너지모델

Baumeister(2014)는 자기조절을 바람직한 기준에 맞춰 기존의 반응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은 인간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이어트를 위해 간식을 먹지 않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일상 행동에서 발생한다. 즉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통제(self-control) 또는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을 하고 있다. 또한 자기조절을 성공적으로 잘 하는 사람일수록 개인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조절은 성공적인 학업과 직업적 성취, 가까운 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및 만족, 폭력적 행동이나 범죄 행동 개입의 감소, 편견의 극복, 중독에 대한 저항, 건강한 생활양식, 정서적·신체적 건강, 그리고 장수와 연관이 있다(Vohs &

Baumeister, 2016).

자기통제의 에너지 모델(strength model of self-control)에 따르면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용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소진된다(Baumeister & Vohs, 2007; Baumeister, Vohs & Tice, 2007). 여기서 인지적 자원이란 충동적인 생각과 감정 또는 행동을 제어하는 것과 같이 자기조절이 요구되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다. 즉 자기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동안 소진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조절 직후에는 자기 조절능력을 위한 다양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자기통제 에너지(self-control strength)를 사용한 후 제한된 상태, 즉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모든 자원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자아고갈(ego depletion)이라고 한다(Baumeister et al., 1998; Baumeister & Vohs, 2007).

자아고갈로 인한 기능 저하는 주의, 정서, 욕구/충동, 생각통제, 인지적 과정, 선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아고갈로 인한 자기통제능력의 저하는 정서와 기분 통제(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충동적 행동의 억제 또는 유혹에 대한 저항능력(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생각을 조절하거나 억압하는 것(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고갈은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한 후 심사숙고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Baumeister et al., 1998)을 어렵게 한다. 자아고갈은 비도덕적 행동과 이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며(Mead, Baumeister, Gino, Schweitzer, & Ariely, 2009), 자아가 고갈된 경우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사고를 할 때 수행이 저하된다(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이러한 자아고갈 현상은 여러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지되어왔다. 최근 Hagger, Wood, Stiff 및 Chatzisarantis(2010)는 이전에 10여년 동안에 이루어진 자아고갈 관련 연구 중 ‘두 개의 연속적인 과제 제시 방식(the dual-task paradigm)’을 적용한 83개의 실험 연구를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연속적인 과제 제시 방식과 자기통제의 에너지 모델을 적용한 실험들에서 자아고갈 효과가 확실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의 종류가 같거나 달라도 효과 크기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특별한 과제를 통해서만 자아가 고갈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자아고갈과 정보처리

자동적 정보처리과정(automatic process)과 통제적 정보처리과정(controlled process)이라는 두 가지 정보처리과정(Bargh & Ferguson, 2000)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두 정보처리과정 중 어떤 정보처리과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지적 자원을 소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변정보를 처리할 때 자동적 정보처리과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통제적 정보처리과정을 사용하면 인지적 자원을 더 많이 소진하게 된다(Muraven & Baumeister, 2000).

자기조절은 통제적 처리과정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조절은 일반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고갈 상태가 되면 자기조절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소진하는 통제적 처리를 억제하고 자동적 처

리를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자아고갈 상태에 서는 자동적 처리과정으로 전환되려는 것을 억제(inhibition)하고 심사숙고하는 처리과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즉, 자아고갈이 주의집중(controlling attention)하거나 심사숙고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Schmeichel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고갈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문제 해결 등 집행기능과 관련된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에서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의 재인이나 법칙을 적용하는 과제 의 수행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통제적 정보처리과정은 자아고갈 효과에 영향을 받았지만 자동적 정보처리과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Schmeichel 등은 실험 1에서 자아고갈이 인지적 수행을 약화시키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고갈을 조작한 뒤 분석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아가 고갈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수행이 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2에서는 인지자원이 덜 요구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정보 처리과정에서는 자아고갈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자아고갈 조작 후 단순한 정보처리 과제와 보다 복잡한 정보 처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아가 고갈된 집단의 경우 집행기능을 요구하는 인지적 수행의 저하를 보였고 단순하게 정보를 재인하거나 법칙을 적용하는 것에서는 수행의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아고갈이 더 고차원적인 인지과정에서의 수행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에 대한 배심원의 정보처리

이야기 모델 혹은 이야기 모형 모델(the story model)을 수립한 Pennington과 Hastie(1992)는 배심원들이 제시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처리과정 상에 형성된 이야기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Pennington과 Hastie의 연구(198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이를 무시하려 하며, 중요도를 낮게 지각했다. 또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용이하게 하는 증거들의 제시 순서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Pennington과 Hastie(1988)는 검사 측 혹은 피고인 측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조작한 후, 양측 주장의 설득력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관성이 낮은 순서로 정보가 제시된 측보다 일관성 있게 증거를 제시한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설은 국내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김은영(201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실험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증거들과 정보들을 기초로 각자 구성한 이야기가 그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거 제시 순서를 인과관계에 따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쉽도록 구성한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배심원의 처벌 판단이 증거 제시 순서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이야기 모형 모델이 국내 재판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관성 논증 이론(coherence-based reasoning)(Carlson & Russo, 2001; Diamond &

Casper, 1992)은 배심원들이 판단 초기에 사건에 대한 잠정적 가설을 세우고, 그에 기반을 두고 후에 제시되는 증거들을 종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설과 반대되는 증거가 후반에 제시될수록 반대되는 증거는 왜곡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 쪽으로 치우치는 증거들이 재판 전반에 제시된다면, 재판 후반에 제시되는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들의 중요성은 간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위 이론들과 상충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표지민과 박광배(2014)의 연구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하기 쉽게 유도된 시나리오에서 강력한 반박 증거(무죄 증거)가 후반에 제시되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 즉, 초반에 제시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을 바꾸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결정 전 구간(pre-decisional phase)과 결정 후의 구간(post-decisional phase)에서 사용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결정 전 구간에서는 직관적,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automatic process)를 하지만 결정 후 구간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정보를 처리(controlled process)하기 때문에 반박 증거가 결정 후 구간에 제시되면 더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고갈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아고갈 정도에 따라 표지민과 박광배(2014)의 결과는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아가 고갈되면 남은 인지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동적인 정보처리과정(automatic processing)이 사용되게 된다(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그런데 실제 재판과정은 인지적 자원을 끊임없이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오랜 시간동

안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심원은 재판의 후반으로 갈수록 인지적 자원이 소진된 자아고갈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아고갈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과정의 후반부인 결정 후의 구간에서 심사숙고적인 사고가 아닌 자동적 사고를 하여 반박증거를 덜 고려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자아고갈과 재판에서의 처벌 판단

Reinhard, Scharmach 및 Stahlberg(2013)는 형사 재판 상황에서 자아고갈이 거짓말 탐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학생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아가 고갈된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판별 정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아고갈 상태가 되면 타인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판별 정확도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자아고갈의 영향은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을 요구하는 언어적 정보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고갈 집단이 언어적 정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거짓말 탐지의 정확도가 더 낮았다.

정보에 대한 판단 오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에 대한 기억이다. Harkness, Paterson, Denson, Kemp, Mullan, 및 Sainsbury(2015)은 목격자 증언 연구를 통해 자아고갈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자아고갈을 조작한 후 범죄사건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고갈집단이 정서관련 기억의 정확도가 더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

아고같이 발생하면 통제적 정보처리과정을 통한 후속 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같은 자동적 정보처리 과정에 의존하게 되어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anziger와 동료들(2011)은 자아고갈 효과가 가석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연속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인지 자원 혹은 집행기능을 고갈시킨다는 선행연구(Muraven & Baumeister, 2000)를 기반으로, 판사들의 실제 가석방 심사 판결 1,122건을 분석하였다. 해당 데이터에서 판사들은 매일 14건에서 35건 정도의 심사에 참석하여 재소자들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했다. 해당 판사들의 일과에는 2번의 휴식 및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판결을 내리는 평의 세션이 크게 3 세션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자아고갈의 영향으로 판사의 판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석방 심사에서 죄수의 요청을 더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판사들은 각 평의 세션의 초반 사건일수록 재소자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더 많이 내렸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재소자의 요구를 더 많이 기각했다. 또한, 각 평의 세션의 첫 세 사건과 마지막 세 사건의 판결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세 세션 모두 첫 세 사건이 마지막 세 사건보다 재소자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주었다. 이는 판결과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속적으로 판결을 하다보면 인지자원이 고갈되고, 그 결과 현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 같은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고갈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인지적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Baumeister, Vohs, & Tice, 2007), 판결을 내리는데 인지적 자원을 덜 투입하려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식사시간이나 중간 휴식 시간 이후에는 회복되었는데 이것을 연구자들은 자기조절자원이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실제 판결을 활용하여 자아고갈에 따른 판결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보통의 상관 연구처럼 자아고갈의 인과적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험 연구를 통해 자아고갈을 조작하여, 자아고갈 정도가 재판상황에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 등의 판결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고갈이 배심원의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반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재판상황에서 배심원들은 통제적 처리(controlled process)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각 증거들의 신뢰도를 평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지적 자원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자아가 고갈되고, 후반에 제시되는 증거일수록 자동적 처리(automatic process)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나타나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가 더 적게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이 달라지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판 전반부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즉 피의자의 유죄를 지지하는 증거가 제시된 상태에서 재판 후반부에 앞선 증거를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피의자의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자아 고갈 정도에 따라 제시된 반박

증거를 심도 깊게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유죄판단과 양형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자아고갈 조건의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재판 후반에 제시되는 반박증거를 고려한 정도를 낮게 보고할 것이다.

가설 2. 자아고갈 조건의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유죄판결을 더 많이 내릴 것이다.

가설 3. 자아고갈 조건의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양형을 구형할 것이다.

가설 4. 자아고갈과 양형판단의 관계를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정도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방법

실험 참가자

실험참가자는 수도권 소재 K대학교 재학생 66명이었다.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고 한 후, 실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신청한 학생들(만 19세 이상)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자료분석에는 ‘사후 설명에서 독립변인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실험 참가자 1명, ‘종속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재판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 실험 참가자 1명, 그리고 ‘일반적인 형량 범위

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게 구형한’ 2명을 제외한 62명(남자: 24명, 여자: 38명)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0.98(19-25세)세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1,0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제공받았다.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자아고갈 정도에 따라 두 개의 조건을 구분하였다. 실험조건은 자아고갈 조건으로 자기 조절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통제조건은 실험조건과 유사하지만 자기 조절 자원을 덜 사용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자아고갈 조작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 및 Tice(1998)와 김재휘와 설하린(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아고갈 정도를 조작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조건인 자기조절자원 고갈집단(자아고갈 집단)과 통제집단 중 한 곳에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 처치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대학생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위한 연구라고 설명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계 책에서 발췌한 한 장 분량의 동일한 영어 지문을 제시받았다. 또한 과제에 대해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많은 양을 찾아 지우는지를 보고자 한다’고 두 조건 모두 동일하게 설명하였다.

자아고갈집단에서는 해당 지문에서 알파벳 ‘E(e)’를 모두 찾아 지우는 과제를 5분의 제한 시간동안 수행하였다. 5분이 경과된 후에는

변형된 규칙이 부여되는데 한 단어에 다른 영어모음(a, i, o, u)이 포함된 경우만 알파벳 'E(e)'를 지우도록 하였다. 변형된 과제 역시 5분의 제한 시간을 부여하여, 두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데 총 10분을 제공하였다. 통제집단은 동일한 지문에서 '숫자'를 찾아 지우는 과제가 주어졌고 실험 집단과 동일하게 10분을 제공하였다.

재판 시나리오

재판 시나리오는 표지민과 박광배(2014)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사례를 이용하였다. 해당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화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9명의 배심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재판장이 합리적 의심 초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무죄로 최종 선고되었다.

재판 시나리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시를 우선 제공한 뒤에 1) 혐의 사실, 2) 사건 개요, 3)재판의 쟁점, 4)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의 순으로 제시된다. 이후에 양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각각 네 개씩 제시된다. 이때 강력한 유죄 증거(검사 측 제시 증거) 두 개가 연속적으로 우선 제공된 후, 나머지 증거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유죄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유죄로 판단하기 쉽게 구성하기 위함이다. 증거들의 제시 순서는 그림 1과 같다.

반박증거는 강력한 무죄 증거로, 피고인 측이 제공한 증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두 개의 반박증거 중에 실험 참가자들이 더 강력하다고 판단했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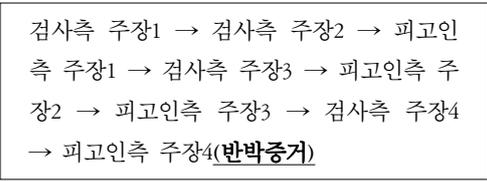


그림 1. 증거 제시 순서

나의 반박증거만을 사용하였다. 반박증거의 형태는 과학적 증거이며, 검사측이 초반에 제시한 부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반대의견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 법의관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전문가 진술을 하였다. 전문가 증인 진술에서 ○○○ 법의관은 피해자 시신에 대한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 □□□의 부검 결과를 검토한 후, 몸에 불이 붙을 당시 피해자가 실신상태였다는 □□□ 추정을 반박하였다.

○○○ 법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는 눈꺼풀, 입술, 기관지 안쪽의 명자국과 출혈점 등의 경부압박(목 졸림)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약한 목 졸림에 의해 생긴 흔적이고 실신에 이를 수 있는 목 졸림의 흔적이 아니다. 실신하게 될 정도의 목 졸림이 있었다면, 갑상연골(숨쉬거나 말하는데 사용되는 기관으로 목 앞쪽에 위치하는 연골조직)의 골절이나, 설골(아래턱 뼈와 가슴부 사이의 U자형을 나타내는 작은 뼈)의 골절, 두개골의 골절 또는 뇌조직의 울혈(피멍), 그리고 목 근육의 내출혈 등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그러한 연골 골절과 근육 내출혈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검에서 나타난 경부압박의 흔적만으로는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실신의 상태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론적으로 검사 측의 부검 소견은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당시 그가 실신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

조작검증

독립변인인 자아고갈이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조작검증으로 제시한 질문은 1) 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노력이 필요했는가, 2) 과제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3) 과제는 얼마나 자신을 진 빠지게 했는가이다. 각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조작검증을 위한 분석에는 세 질문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측정 변수들

정서

정서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PANAS를 이용하여 정서를 측정하였다. 정서의 측정은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유정(1994)이 번안하고 이현희 등(2003)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순간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정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게 하였다.

처벌판단

해당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 되었으므로 살인죄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의 처벌판단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유무죄 판단은 피고의 유, 무죄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내려질 합당한 양형을 년 단위로 답하도록 하였다.

반박증거 고려도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반박증거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으로, 반박증거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고려하였는지를 7점 척도(1: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7: 매우 고려하였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각 조건에 무선할당 된 실험 참가자들을 조건별로 집단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집단은 한 집단 당 최대 5명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실험 참가자가 실험 장소에 도착하면 연구 목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실험 참여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실험 참여에 앞서 참여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독립된 연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은 대학생들의 인지 능력 측정에 대한 연구로 소개된 자아고갈 수준 조작 과제에 참여하였다. 자아고갈 상태 조작 과제를 수행한 직후, 참여자들은 현재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PANAS와 자아고갈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였다. 조작검증 질문에 응

답이 모두 이루어진 후, 실험 참가자들은 첫 번째 과제가 끝났으며, 새로운 과제인 배심원의 유, 무죄 판단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고 안내받았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두 번째 실험에 대한 한 장 분량의 설명서와 함께 해당 재판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참여자들은 해당 재판 사례에서 추가로 제시된 마지막 증거(반박 증거)를 읽은 후,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 및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 정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하였다. 모든 과제가 끝난 후에,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약속된 보상을 지급한 뒤 실험을 종료하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으로 분석되었다. 조작검증과 각 변수들에 대한 통계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분석, 독립표본 *t*-검증, 공변량 분석 그리고 매개변수 분석이 실시되었다.

결 과

자아고갈 조작점검

자아고갈이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조작검증을 위해 측정된 3 문항의 평균값을 자아고갈 지수로 사용하였다 (지수 값이 클수록 자아고갈이 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자아고갈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평균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고갈 집단의 평균 점수는 4.20(1.06)이었으며, 통제집단의 평균은

2.58(0.92)로 자아고갈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60)=6.40$, $p<.001$. 즉, 자아고갈 과제를 실시한 실험참여자의 경우 통제 과제를 실시한 참여자에 비해, 과제 수행에 노력이 더 필요했으며, 고생스러웠고, 진이 빠졌다고 보고하였다.

정서

자아고갈 조작 유무에 따라 정서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조건간의 정서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서가의 산출은 PANAS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PANAS는 총 20개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각 열 문항씩 포함되어있다. 부정정서 점수와 긍정정서 점수를 따로 산출하여 각 평균값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긍정정서($M_{실험}=2.76(.63)$, $M_{통제}=2.30(.53)$)와 부정정서($M_{실험}=1.70(.58)$, $M_{통제}=1.41(.41)$) 모두 고갈 집단에서 더 높게 보고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_{긍정정서(60)}=3.15$, $p<.01$, $t_{부정정서(60)}=2.28$, $p<.01$. 즉, 자아고갈 과제를 수행한 경우 통제집단 과제를 수행한 경우보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모두를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건별 정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	자아고갈	통제	<i>t</i>
긍정	2.76 (.63)	2.30 (.53)	3.15**
부정	1.70 (.58)	1.41 (.41)	2.28**

** $p<.01$

자아고갈 조작 여부에 따라 정서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결과분석에서는 정서효과를 통제변인으로 포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

자아고갈 조건에 따라 반박증거의 고려 여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자아고갈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가 통제된 상태에서, 두 집단 간 반박증거의 고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 61) = 5.66, p < .05$.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자아가 고갈된 실험집단이($M = 5.66, SD = 1.07$)이 통제집단($M=6.00, SD=.84$)보다 반박증거를 덜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변인으로 포함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반박증거 고려 정도에 영향이 없었다, $F_{\text{긍정정서}}(1, 61) = .305, p = .58, F_{\text{부정정서}}(1, 61) = .00, p = .93$.

표 2. 조건별 반박증거 고려정도

자아고갈	통제	F
5.66 (1.07)	6.00 (0.84)	5.66*

* $p < .05$

처벌판단

유무죄 판단

실험 참가자들은 재판 시나리오를 모두 읽은 뒤, 증거들을 취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렸다. 처벌판단은 이분법적인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중 유무죄 판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 62명 중 34명(54.8%)이 유죄, 28명(45.2%)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선행연구(표지민, 박광배, 2014)의 유무죄 판단 비율과 유사했다(전체 258명 중 유죄 146명(56.59%), 무죄 112명(43.41%)).

다음으로, 자아고갈 집단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는 수준에서 자아고갈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죄 판단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chi^2 = 3.28, p = .07$. 자아가 고갈된 경우에 유죄를 더 선고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즉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자아고갈집단인 실험 집단에서는 66.67%가 유죄를 선고한 반면에 자아고갈이 적은 통제집단에서는 실험 참여자 중 43.75%만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표 3. 조건별 유무죄 판단의 빈도와 백분율

구분	자아고갈	통제	χ^2
유죄	20 (66.67)	14 (43.75)	3.28 ⁺
무죄	10 (33.33)	18 (56.25)	

+ $p = .07$

()는 백분율

양형

실험 참가자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합당한 양형을 구형하도록 하였다. 집단 간 양형기간의 차이는 긍정/부정 정서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COVA)으로 검증되었다. 그

표 4. 조건별 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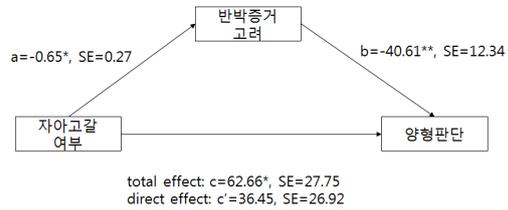
자아고갈	통제	F
85.6 (133.05)	44.25 (53.61)	5.09*

* $p < .05$ (단위: 개월)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자아고갈 집단인 실험 집단이 평균 85.6개월(133.05), 통제집단이 평균 44.25개월(53.61)의 형량을 부과하였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정서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61)=5.09, p < .05$. 한편 공변인으로 포함된 긍정정서는 양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F(1, 61)=3.38, p=.07$. 그에 반해 부정정서는 양형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61)=.09, p=.76$.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의 매개효과

처벌판단에 있어서 반박증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고갈 조건을 독립변수로 하고(통제=0, 자아고갈=1),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정도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형량을 종속 변수로 하는 5,000 표본을 이용한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p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Hayes, Preacher, & Myers, 2011;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이때 앞서 양형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긍정정서를 공변인으로 포함시켜 이를 통제하였다. 본 분석은 IBM SPSS 24 상에서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와 편이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고갈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6.22,$



* $p < .05$ ** $p < .01$

그림 2.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의 매개효과

95% CI [4.728, 68.605]. 이에 비해 자아고갈이 처벌판단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B=36.45, SE=26.92, t=1.317, p=.181$. 이는 자아고갈과 양형판단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가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즉, 자아고갈이 되면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를 덜하게 되고 그 결과 처벌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아고갈 여부가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고갈 여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한 후 실험 참가자들에게 재판 사례를 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고갈 집단이 재판 사례에서 제시되는 반박증거를 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자아고갈 집단이 재판사례의 피고인에게 더 많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고 더 높은 양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아고갈이 발생하면 반박 증거를 덜 고려하게 되어 그 결과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게 된다는 가

능성을 제시한다. 해당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반박증거의 고려정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고갈과 양형판단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박증거에 대한 고려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분석 결과는 자아고갈이 발생하면 정보처리에 충분한 에너지가 투여되지 못해, 정확한 양형판단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재판과정은 복잡한 인지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과정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검토 반박하는 매우 통제적 정보처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은 논리적 추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인지적 자원의 소진이 발생하기 쉬운 정보처리과정이다(Muraven & Baumeister, 2000; 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그런데 본 연구에 따르면 자아고갈이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반박증거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양형을 판단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Schmeichel과 동료들(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아고갈로 인해 자동적 정보처리를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아가 고갈되지 않은 참가자들은 유죄로 판단하기 쉽도록 유도된 시나리오에서 후반에 제시된 강력한 무죄 증거를 통제적 정보처리를 사용하여 처벌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자아가 고갈된 참가자들의 경우 해당 증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여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았

다. 즉, 증거들을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자동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된 유죄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라고 잠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후반에 제시된 무죄 증거가 강력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낮게 판단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아고갈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10여년 동안 시행되어온 국민참여재판은 기존의 재판과 달리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배심원의 재판참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재판에 비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재판 진행은 숙련된 법조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재판과정이 생소한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과정으로 배심원들의 자아고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재판과정은 이 같은 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기와 같이 1회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폐단들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반 재판에 비해 단기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서 유발될 수 있는 자아고갈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아고갈 연구(Gailliot & Baumeister, 2007; Gailliot, Baumeister, Schmeichel, DeWall, Maner, Plant, Tice, & Brewer, 2007)에서 밝혀진 것처럼 당분을 섭취시키거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갈된 자아 에너지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현 재판 제도 안에서 자아고갈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긴 시간의 재판 과정이 자아고갈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자아고갈이 발생할 수 있는 긴 시간의 재판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서의 판단을 올바르게 하려는 것과 같은 정확성 동기의 발생은 재판과정에서 제공되는 반박이나 지지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재판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자아고갈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고갈 조작의 성공여부를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같은 질문이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방식이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자아고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리적 지표와 같은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한 자아고갈 조작의 성공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자아고갈 이론이 소비자 행동이나 기부, 교육 등 다양한 장면에서 연구되고 있지만(김류원, 정세훈, 2017; 김재휘, 설하린, 2014; 백소라, 황선진, 여준상, 2013; 송찬섭, 이선규, 김연규, 강은구, 2016), 법심리학 영역에서, 특히 재판상황에 적용 예는 본 연구가 최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은 그 어떤 상황보다 객관적이어야 하며 편견이나 편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아고갈은 인지자원 소진으로 인한 편향

된 의사결정과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초로 하여 자아고갈에 관한 연구가 법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의 자아고갈 집단과 통제 집단 간 경험한 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정서 경험 차이의 원인이 불명확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정서 경험에서의 차이에 관한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Hagger, Wood, Stiff, 및 Chatzisarantis(2010)의 메타분석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자아고갈 과제가 약간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했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Vohs, Baumeister, Ramanathan, Mead, Schmeichel, 및 Hofmann(2016)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아가 고갈되면 전반적인 정서관련 자극에 대해 더 취약해지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정서측정이 자아고갈 과제 수행이후에만 실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건에 할당된 피험자들이 초기부터 정서 상태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정서의 상승이 자아고갈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자아고갈 과제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인지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런데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기와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석한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특성-예

를 들어, 경험이나 실제 재판 상황에 발생하는 다양한 동기 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길원미 (2011). 국민 참여 재판에서 증거사진 제시 시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류원, 정세훈 (2017). 자아조절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1(5), 379-404.
- 김범준, 최승혁 (2008).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43-361.
- 김은영 (2013). 이야기모델을 적용한 배심원들의 판단결정과정의 검증연구. *형사정책연구*, 24(1), 361-392.
- 김재휘, 설하린 (2014). 자기조절자원의 소진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심적 계정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1), 157-170.
- 백소라, 황선진, 여준상 (2013) 소비자의 조절 방식이 시간한정 프로모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4(3), 471-487.
- 성유리, 박광배 (2015). 유죄판단 역치에 대한 배심설시 절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497-510.
- 송찬섭, 이선규, 김연규, 강은구 (2016). 융복합 시대의 자기효능감이 목표설정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아조절자원의 고갈과 비교갈집단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3), 151-164.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3-125.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27-140.
- 표지민, 박광배 (2014). 반박증거의 제시시점에 따른 배심원의 판단 변화. 2014년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41-241.
- 하사랑, 김범준, 김민지 (2013). 공인의 개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1), 67-84.
- Bargh, J. A., & Ferguson, M. J. (2000). Beyond behaviorism: on the automaticity of higher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925-945.
- Baumeister, R. F. (2014). Self-regulation, ego depletion, and inhibition. *Neuropsychologia*, 65, 313-319.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Muraven, M., & Tice, D. M. (1998). Ego depletion: Is the active self a limited resou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52-1265.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7). Self Regulation, ego depletion, and motiv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115-128.
- Baumeister, R. F., Vohs, K. D., & Tice, D. M.

- (2007). The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 351-355.
- Bright, D. A., & Goodman-Delahunty, J. (2006). Gruesome evidence and emotion: Anger, blame, and jury decision-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30, 183-202.
- Carlson, K. A., & Russo, J. E. (2001). Biased interpretation of evidence by mock juro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7, 91-103.
- Danziger, S., Levav, J., & Avnaim-Pesso, L. (2011).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 6889-6892.
- Diamond, S. S., & Casper, J. D. (1992). Blindfolding the jury to verdict consequences: Damages, experts, and the civil jury. *Law and Society Review*, 26, 513-563.
- Douglas, K. S., Lyon, D. R., & Ogloff, J. R. (1997). The impact of graphic photographic evidence on mock jurors' decisions in a murder trial: probative or prejudicial?. *Law and Human Behavior*, 21, 485-501.
- Gailliot, M. T., & Baumeister, R. F. (2007). The physiology of willpower: Linking blood glucose to self-contro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303-327.
- Gailliot, M. T., Baumeister, R. F., Schmeichel, B. J., DeWall, C. N., Maner, J. K., Plant, E. A., Tice, D. M., & Brewer, L. E. (2007). Self-control relies on glucose as a limited energy source: Willpower is more than a metaph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325-336.
- Hagger, M. S., Wood, C., Stiff, C., & Chatzisarantis, N. L. (2010). Ego depletion and the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 495-525.
- Harkness, E. L., Paterson, H. M., Denson, T., Kemp, R. I., Mullan, B., & Sainsbury, K. (2015). Can ego depletion and post-event discussion change the way we remember a crim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2, 172-18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 F., Preacher, K. J., & Myers, T. A. (2011).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E. P. Bucy & R. L. Holbert (Eds.),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pp. 434-465). New York, NY: Routledge.
- MacKinnon, D. P., Fairchild, A. J., & Fritz, M. S. (2007).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93-614.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 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15-1338.
- Mead, N. L., Baumeister, R. F., Gino, F., Schweitzer, M. E., & Ariely, D. (2009). Too tired to tell the truth: Self-control resource

- depletion and dishones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594-597.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 247-259.
- Muraven, M., Tice, D. M., & Baumeister, R. F. (1998). Self-control as a limited resource: Regulatory depletion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74-789.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42-258.
-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89-206.
- Pennington, N., & Hastie, R. (1988).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Effects of memory structure on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4, 521-533.
- Reinhard, M. A., Scharmach, M., & Stahlberg, D. (2013). Too exhausted to see the truth: Ego depletion and the ability to detect dece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 618-630.
- Schmeichel, B. J., Vohs, K. D., & Baumeister, R. F. (2003). Intellectual performance and ego depletion: role of the self in logical reasoning and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3-46.
- Vohs, K.D., & Baumeister, R.F. (Eds.) (2016).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ition)*. New York: Guilford.
- Vohs, K. D., Baumeister, R. F., Ramanathan, S., Mead, N. L., Schmeichel, B. J., & Hofmann, W. (2016). *Depletion enhances urges and feeling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unpublished manuscript.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gner, D. M., Schneider, D. J., Carter, S. R., & White, T. L. (1987). Paradoxical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130.

1 차원고접수 : 2018. 06. 04.

심사통과접수 : 2018. 07. 10.

최종원고접수 : 2018. 07. 12.

Too Exhausted to Catch a Clue: Ego Depletion Effect on the Juror's Consideration for Counter Evidence

Minji Kim

Shinkwang Middle School

Beom Jun Kim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and how ego depletion influences making judgments objectively and judgments of punishment when evidences are presented in a serial manner. We hypothesized that the group of ego depletion would less deliberate on counter evidence and thus the group would give more judgments of guilty and heavier sentencing judgments than a control group would. 62 participants randomly were assigned to ego depletion group or control group. Consistent with our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of ego depletion less consider the evidences against prior arguments than the control group. More importantly, the group of ego deple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onvinced the suspect of the crime more and gave heavier sentencing.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extent of consideration for counter evidence mediated the effect of ego depletion on sentencing.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go depletion could have effects on jurors'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judgmen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go depletion, Counter evidence, Punishment, Sentencing, Jury trial